

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
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
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
쭈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
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보낼곳: 우 110-030 서울시 중로
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
자 알 ●인터넷:www.hanmaum.org 또는 한아름 선원 ●
FAX: (031)470-3116

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허탈히 戒를 생각지 말아야

여러분! 오늘 오계를 받았습니까. 그런데 우리
가 이 마음공부를 증득하지 못하고 오계를 방편
으로만 설하고 방편으로만 우리가 오계를 받는다
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받는 사람과 주
는 사람이 둘이 아니며,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
의 온 누리의 그 뜻이 한 찰나에 서리나 오계를 받
은 분들은 앞으로...

첫째는 악한 병고에 휘달리지 않을 것이고, 두
번째는 모두 한마음으로서 돌아가는데 공부에 게
으르지 않을 것입니다. 사람이 여우 꼬랑지라도
봐 튀어 물리가 타지고 충전이 되듯 우리가 사는
뜻이 그대로 전력과 자력과 통신력이, 그리고 광
력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계입니다.

세 번째, 자녀들을 기르고 어머니 아버지로서
부모를 모시고 살아나가는 이 험난한 세월 속에
나 한마음으로 오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면 그 마
음의 뜻이 서로서로 전달되지 않으면서도 전달되
면서 이어진다는 그 밝음의 불빛, 여러분은 그저
오계만 받는다 하면 돈을 내고 가서 계를 받는데,
그것은 만약에 스님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
를 준다 하고 계첩을 준다 하고 만든다 하면 그것은
업벌에 처할 것입니다.

여러분, 똑똑히 잘 생각하시고, 계첩이나 또는
오늘 서로 계를 주고받은 그 뜻을 마음으로서 새
겨져서 돌집토서 주고받은 그런 결로만 생각하다
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. 준 사람도 책임이 있
고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처님의 뜻도 책임
이 있으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그 계를 지키시
도록 하며 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.

넷째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죠? 그
러나 이 오계를 오늘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만
약에 승천하는 길이, 천당길이 지금 청와대라면,
비유하는 겁니다. 청와대에는 근거가 없이는, 포
를 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
우린 오계를 받은 뜻의 그 화중이 있는 것
입니다. 우리가 살아생전에만 이렇게 거주장스럽
게 방편으로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. 나도 책
임이 있는 겁니다. 물론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은 여
러분과 나와,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면 내 책
임이 아주 클 것입니다.

그래서 내 책임이 크다면, 여러 신도님들에게
만약에 허탈해 하면서 거짓으로서 설했다면, 내가
진실한 마음으로서 여러분에게 계를 설하지 않았
다면, 내가 만약에 구렁이가 돼서 여러 신도님의
의식이 그 비늘마다 들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
할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
막대한지 여러분은 그것을 깊이 모르실 겁니다.
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계를 설한 것을, 나
는 주는 사이 없이 주었으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
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허탈히 그
것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.

지금 선통한 것이 뭐냐 하면 잘 짚어서 계를 준
다 하면 그저 무조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받
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시는데, 부처님께서도 말씀
하시기를 '계를 허탈히 거짓으로 방편으로 했
다면 그건 한테 떨어지는 설이다.' 이런 문제입니
다. '한테 떨어지지 않게 하라. 한마디를 하더라도
한테 떨어지지 않게 하라. 계를 설하되 한테 떨어
지지 않게 하라.'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. 그 말
씀이 있는, 그때 그 시절에 있던 그 뜻은 오늘날까
지도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. 삼
천 년 전이 오늘이요, 삼천 년 후가 오늘입니다.

오늘이라는 이 자제에서 찰나찰나 공에서 변해
돌아가고 부서지고, 모든 게 찰나찰나 늙어지고
젊었다가도 자라고, 자라면서 늙어지고 없어지고
또 생하고 이러는 이 시절에서 우리는 잘 마음을
가다듬어서 한마음으로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
한마음에다 되입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진실
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. 만약에
오늘 또 계 받은 사람이 탄 데 가서 또 좋은 줄 알
고 계를 받으면 여러분은 오늘의 그 계 받은 게 무
효가 될 것입니다. 애써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받
았을 가리지 않고 별어서 살 연구 하는 사람이 올
게, 단 1분을 쓴다 하더라도 율게 써야지 허무하

게 써서서 절대 안 될 것입니다.

오늘도 어찌게도 가만히 보니까 이 장소가 좁습
니다. 하지만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? 우리가 마음 깊
이 생각하면서 옹기종기 앉아서, 또 옹기종기 앉
아 있지 못하면 저기서라도 들으면 또 어떻게 됩
니까? 여러분의 살림이 궁색한데 이 절에서 크게 한
다고 집만 넓히고 그런대서야 많이 됩니까? 그러
나 우리는 정성스럽게 되는 한, 심시일반으로 되
는 한 넓히자는 거지 여러분이 집이 없이 굶주리
면서 이 절간을 넓히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.
여러분 가정에서 궁색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
고에 휘달린다면 이 못난 나 역시 마음이 아릅니
다. 똑같습니다.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
병고가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가환이 없어지
고 업보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그 밝은 마음과
내 밝은 마음이 지속되면서 아마 웃음으로써 꽃
이 필 것입니다.

우리 스님들이 목탁만 쳐서 종이 아니고 머털
꾸아서 종이 아니고 옷을 입어서 종이 아닙니다.
우리는 매일 시간마다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자
기가 채찍으로써 치면서, 오늘도 자기 채찍으로써
자기 머리를 쳤습니다. 자기 장삼자락의 그 순색
을, 그대로 겹지도 않고 회지도 않은 중심과 중도



**마음의 창살 없는 감옥을
특 쳐버리고
한 찰나에 나설 수 있는
당당한 여러분이 되세요!**



와 중음을 그대로 실현화시키는 이런 보람 있는
오늘의 이 깊은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면
서 여러분을 지속 이끌어 갈 것입니다. 앞으로 이
스님들이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, 또 태어
난다 죽는다 이런 마음도 없이 같은 데 없이 여러
분의 심부름을 싫다 안 할 것입니다.

난 다짐했습니다.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지속되
기도 하고 반 길을 가다가 반 길에 끊어질 수도 있
고 현실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 채 끊어질 수도
있는 것입니다. 이 오계를 준 오늘, 내 책임도 있
으니만큼 여러분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
린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오계를 받은 것이, 그리
고 계첩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

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라면 여
러분이 한번 지켜보고 부처님의 뜻이, 삼라만상
우주 세계, 이 세계가 말없이 바로 말이 전달되고
바로 손 없이 손이 온 누리에 꽂 차 있고 끊어다님
이 없이 그 평발을 여디고, 바로 부처님의 발은 한
발로 디뎠습니다. 이 엄청난 도리를, 광대무변한
이 도리를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
니다.

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미신 짓이요, 자의에서
구하는 것은 진실한 정(眞)에 드는 바로 참선입니
다.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그 마음, 참마음을 바로
발견하는 율은 길이 정에 드는 길입니다. 내가 잠
시 살다가 갈 것을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잠시
낙엽과 같은 것을 그렇게 타의에서 나를 살려 달
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? 양심도 없고 또는 자기

길을 묻는 이에게

현대불교 제 556 호

서기 2005년 12월 14일
(음력 11월 13일) 수요일

법공양 페이지

29



그림 · 최주현



그림 · 최주현

